

‘평생학습 새 삶을 두드리다’ 수기 공모전

부문	학위과정	성명	이 상 용
제 목	평생학습 새 삶을 두드리다		
<p>나는 1962년 초등학교 1학년을 서울 신촌에 있는 창천국민학교에 입학하여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아버지를 따라 강원도 속초의 속초국민학교로 전학하였다. 지금은 동해바다와 설악산을 낀 유명 관광지로 변하였지만 62년 마장동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미니버스로 진부령을 넘어 12시간을 달려 도착한 조그만 포구는 바다에 의지하고 하루하루 힘들고 어려운 삶을 이어가는 가난한 어촌이었다. 또한 시내의 학교를 가려면 신흥사 절이 있는 동네에서 목우재 고개를 넘어 속초 시내까지 3시간을 걸어서 학교에 다녔다. 학교를 가기 위해 동도 트기 전 캄캄한 새벽에 2살 위인 누나의 손을 잡고 수목 울창한 재를 넘으며 너무 무서워 많이도 울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등학교 6시간의 고통보다 더 참기 어려운 것은 배고픔이었다.</p> <p>그 시절 나의 꿈은 열심히 공부하여 선생님이 되어 배고픔을 벗어나는 길이었다. 육성회비를 내지 못해 수업시간에 교실에서 쫓겨나며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입학시험에 합격하였으나 등록금을 낼 형편이 안 되어 진학을 포기하고 시름에 차 있을 때 진학을 못한다는 소식을 들으신 내가 다니던 성당의 신부님은 나를 불러 면담 끝에 서류를 주시며, 부모님 동의만 받아오면 가톨릭계 고등학교, 대학교를 무상으로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다 하셨다. 단, 신부가 된다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그 꿈은 아버지의 일언지하 반대에 펼쳐보지도 못한 채 접고, 신부님의 배려로 서울의 기숙형 전자기술학원 1년 과정 학원비를 지원받고, 아버지가 여비로 주신 천 원을 들고 71년 서울로 올라와 기술학원을 다니면서도 상급학교 진학의 꿈을 버리지 못해 학원장을 설득하여 학원비를 면제받는 조건으로 학원 청소와 야간 경비를 하며 고등학교 졸업학력인정 검정고시 학원을 다니며 시험에 합격해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취득하였다.</p> <p>전자기능사 자격증도 취득하고, 학원에 취업하여 실습조교로 근무하며, 고졸 검정고시에도 합격하여 이제 대학 진학이라는 꿈이 하나씩 실현되는 꿈에 부풀어 학원 책상 위에서 잠을 자며 매일 끼니를 라면으로 해결하면서도 동료들에게 부끄럽거나 부러울 것이 전혀 없었다. 열심히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위해 일하며 하루 4시간을</p>			

자며 공부하여 드디어 한양대 전자공학과에 합격하였지만 어머니의 말기 암 치료를 위해 3년여 마련한 학비를 수술비로 모두 내어 드리고, 인천공단의 대우전자에 취업하여 결혼하고, 20여 년을 가족과 부모님 부양에 정신없이 살아오면서도 나는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니지 못한 것에 항시 미련이 남아있었다.

20여 년 근무한 대우전자에서도 중졸이라는 학력이 진급에 상당히 영향을 미쳐 91년 퇴사하고 전자제품 제조에 뛰어들어 5년여 만에 상당한 위치에 올랐으나 96년 IMF 파도를 넘지 못하고 파산하고 말았다. 일용직을 전전하며 위기는 곧 기회임을 되새기며 공부를 하여 내실을 기하기로 결심하고 꿈속에 그리던 한양대학교 교정을 동경하여 96년 경영대학원 최고지도자 과정을 이수하고, 한양대학교 평생교육원에도 등록하여 5년간 기초와 교양을 다듬었으나 배움의 허기는 채워지지 않기에 내 인생 제2의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의 길을 장고 끝에 선택하고 그에 따른 전문 소양과 기술을 익히고 자격을 취득하여 사회복지 시설을 경영하는 것을 목표로 한양 사이버대학에 입학할 결정하기까지 많은 번민이 있었지만 사회복지학부 사회복지 시설 경영 전공을 선택하고 입학식 날 가슴이 벅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늦은 나이지만 열심히 공부하기로 다짐하며 대학생이 되었다.

학생의 신분임을 잊지 않으려 쑥스러움도 감내하고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학부 MT, 축제, 오프라인 스터디에 적극 참여하는 등 학내 분위기를 익히고 적응하려 부단히 노력하였다. 늦은 나이에 대학공부를 한다는 자부심에 아들 또래의 선배들에게도 각뚱이 존대하며 교내외 행사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였다. 그러나 평생 기술계 용어에만 익숙한 나는 낯선 사회복지 용어와 온라인 학습방법에 참 많이 힘들었지만 젊은 동급생을 따라가려 최선을 다해 공부하였다. 강의 수강과 과제 제출, 토론방 참여, 중간고사, 기말고사 정신없이 1학년이 지나고 조금 공부에 방법을 알아갈 때 옆을 돌아보니 동기 중에도 70이 넘으신 만학인 학우도 있었다. 우리 나이 든 학우 끼리는 과제물과 토론방 등 학사 전반사항을 서로 물으며 도와 학교생활을 이어가는 속에서 사이버대학에는 너무나 다양한 필드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이 있었다. 이들과의 온/오프라인 네트워킹을 통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공유하는 것도 나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임을 깨달았다.

2학년이 되어 학교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되고 공부하는 재미도 느낄 즈음 편입생으로 들어온 학부 학생 중 북한이탈주민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하나원을 나온 지 두 달, 아직은 이곳 표준어에도 익숙하지 못한 학생이 어찌 공부가 가능할까 걱정되어 멘토링 프로그램에서 멘토로 지원하여 그 학생의 멘티가 됨은 물론 5명의 나이 든 만학도가 우리 조에 편성되었다. 나는 처음 입학 때의 어려웠던 내 경험을 토

대로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 멘토링 하였다. 그중 북한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탈북,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을 위해 우리 학교 3학년에 편입한 새터민 멘티 김○○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로 하여 면담하여보니 영어단어를 모르고, 컴퓨터의 기초지식이 전혀 없어 PC, USB라는 단어를 못 알아듣고, 공인인증서 개설 능력이 안 되는 등 내 판단으로는 도저히 온라인 수강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우리 회사 사무실로 불러 내 방에 책상을 하나 마련해서 하루 종일 온라인 수강을 하며 그때그때 질의응답에 응하고 출퇴근을 같이한 지 2년 드디어 그녀가 졸업을 하여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학교의 추천으로 57세의 적지 않은 나이에 불구하고 장애인 시설에서 생활지도 사회복지사로 취업하여 전문직에 종사하며, 만족해하며 3년 차 근무하고 있는 것이 지금 생각해도 그가 대견하고 나 또한 자랑스롭다. 멘토링 프로그램에 멘토로서 3회 참석하여 지금도 10여 명이 정기적으로 만나며 교분을 나누는 등 보람도 크지만 졸업 시 총장님의 봉사상도 수상 하는 영광도 있었다.

내가 학교에 다니는 이유 중 또 다른 하나는 고령을 이유로 60을 전후해 은퇴하여 사장되는 은퇴자들의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지식공유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물론 사회복지 기관이나 시설도 실버인력의 참여가 가능한 모델이기에 관심 있는 강의에 열중하던 중 학교에서 개설 운영 중인 오프라인 강의에서 외부강사를 초청하여 협동조합에 관해 강의를 있었다. 그래 내가 생각하던 바로 이거다 하며 교수님께 개별 질문을 통해 많은 정보를 습득하였다.

그리고 드디어 3학년 2학기에 '드림플라이 협동조합'을 설립하였다. 이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100세 시대'에 50을 전후해 은퇴 등 일자리를 상실하고 소일하는 전문 인력들에게 평생의 노력으로 현장에서 배우고 익힌 지식과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평생 일자리를 개발 제공함을 목표로 시니어들의 사회참여 욕구와 경제적인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켜줄 수 있는 직종과 근로환경을 창출하여 제공함으로써 가치 있는 노년의 삶과 고령인구의 노동시장 참여 활성화 방안으로 직원 협동조합을 설립,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도 기여하기 위하여 직원이 함께 조합을 소유하고 관리하며, 안정적인 평생 일자리를 늘려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그 하나의 사업으로 재가 복지센터를 개소하여 현재 15명의 요양보호사와 2명의 사회복지사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운영하고 있다.

나이 들어 공부하는 재미에 흠뻑 취해 욕심을 부려 평소에 하고 싶었던 상담심리학을 복수 전공으로 신청하여 졸업시험을 통과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과 2개의 학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요양보호사 1급, 건강가정사,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인 자격도 취득하고, 17년 8월 20일 한 학기를 앞당겨 조기졸업하였다. 졸업 후 대학원에 진학하여 좀 더 심화 학습하고 싶었으나 조금 뒤로 미루고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을 설립

하러 동분서주하고 있다. 어릴 적 꿈은 달성하지 못했지만 지난 4년간 한양사이버대를 통해 제2의 꿈의 발판을 만들었다.

또한 한창 공부할 시기에 아버지의 파산으로 뒷바라지를 제대로 하지 못해 죄스럽고 가슴이 아팠던 우리 아이들을 설득하여 큰아들은 사회복지학과 17학번, 작은 아들은 호텔경영 외식조리학과 18학번, 며느리는 사회복지학과 19학번에 입학시키고 그들의 학업에 멘토가 되어 학사일정 전반을 멘토링 해 주고 있다.

이제 도약을 위해 차근차근 한 걸음 두 걸음 나아가려 한다. 협동조합은 현재 80여 명의 뜻을 같이하는 은퇴자들이 동참하여 복지기관 운영사업, 쇼핑몰 사업, 지식공유 사업인 아이들에게 꿈과 미래 직업을 컨설팅하는 드림컨설팅 사업, 시니어에 의한 시니어를 위한 시니어 테마 전문 여행사업을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노인/장애인 복지용구 개발사업을 위해 한양대학교 창업지원단에 창업상담 신청을 해 선정되었다. 자! 꿈을 꾸는 자 모두 모여 평생학습 새 삶을 두드리고, 배우고 익혀 우리 그 꿈의 날개를 함께 펼쳐보자!